

연극으로 전주 공동체 정신 되살린다

극단 창작극회, 정기공연 '콩나물의 노래' 24~28일 창작소극장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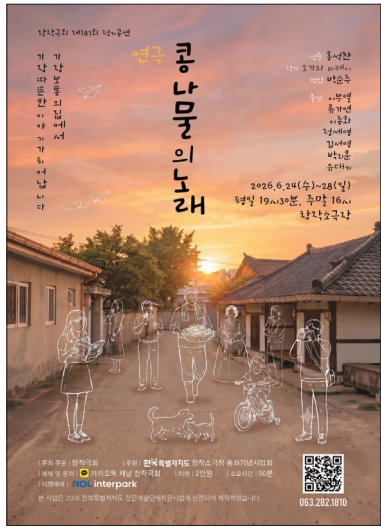
전북을 대표하는 극단 창작극회가 정기공연으로 연극 '콩나물의 노래'를 무대에 올리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관객들에게 전한다.

일본 극작가 오가와 미레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은 1980년대 전주를 배경으로 번안됐다.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잊혀가는 공동체 정신과 인간적 온기를 되새긴다.

작품은 콩나물 가게를 운영하는 민수와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노동과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위협받는 생업의 현실, 그럼에도 가족과 이웃의 정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를 진솔하게 그려낸다. 거창한 사건보다는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주라는 도시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콩나물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와 밀접한 소재이며, 작품 속 콩나물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2018년 초연 당시에도 작품과 전주의 지역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원작자 오가와 미레이는 일본의 대표 극작가 이노우에 히사시의 비서이자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시대적 문제를 인간적인 시선과 섬세한 감성으로 풀어내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콩나물의 노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시대와 인간의 본질을 조명하는 작품



연극 '콩나물의 노래' 포스터

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공연은 창작극회의 예술적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창작극회는 '연극을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의 삶과 시대의 현실, 서민들의 애환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려는 극단의 철학이 작품 속 휴머니즘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단순한 재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창작극회는 지난 2018년 이 작품

을 선보인 바 있으며, 다시 한 번 작품을 선택함으로써 오늘날 관객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속도와 효율이 우선되는 시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큰 공감과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961년 전북대학교 극예술연구회를 모태로 출발한 창작극회는 전북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창립자 고 박동화 선생의 뜻을 이어 지역성과 시대성을 담은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전북 연극사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창작극회가 오랜 시간 지역 연극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대를 잇는 예술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선배 세대가 쌓아온 무대 경험과 연극 정신이 후배 세대에게 전해지며 극단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배우와 창작 인재 양성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공연이 펼쳐지는 창작소극장 역시 이번 무대의 의미를 더한다. 1990년 개관한 창작소극장은 창작극회의 자체 공연은 물론 다양한 공연 예술이 이어져 온 전북의 대표적인 연극 전용 공간이다. 지역 연극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문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작극회는 이번 '콩나물의 노래'를 통해 과거의 향수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묻는다. 가족과 이웃, 노동과 존엄,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낸 이번 공연은 웃음과 눈물, 그리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위로와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성근 기자

이주 외국인 찾아가는 전통문화 교육

전주역사박물관, 사회포용 박물관 프로그램 '둘러둘러 조물조물' 운영

전주역사박물관이 이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화된 지역 사회 환경에 발맞춰 이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사회포용 박물관 프로그램인 '둘러둘러 조물조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장애인·국적·계층·성별 등 차별 없는 문화·교육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복지센터와 보호기관, 센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이동 간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가족센터와 국제요리학원에서 가족센터 구성원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도예 및 공중요리 체험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 여성과 함께 전주 10미(味)를 기반으로 한 공중요리 및 향토요리 교육이 진행되고,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물을 통해 한국의 생활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결합한 그릇을 직접 제작해 보는 도예 교육도 마련됐



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참여자 자국 문화의 공통된 생활문화와 조형 요소를 비교·탐색하며 문화 간 유사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동 창작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문화적 거리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장수군, 슬림 오페라 '마술피리'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술답은나라'의 세 번째 공연인 슬림 오페라 '마술피리'가 지난 17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올해 진행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연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이 찾으며 지역민들의 높은 문화예술 관심과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 '마술피리'를 군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아리아와 중창 중심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제한된 공연 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슬림 오페라' 형식으로 기획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공연에는 이대정량 지휘자와 광속연 연출가를 비롯해 국제콩쿠르 수상 경력을 보유한 성



약가 경영원, 박순기, 왕기현, 김준태, 강주희, 박예은과 피아니스트 김지수가 출연했다.

또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타악기로 구성된 관현악단 등 총 20명의 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80분 동안 14개의 주요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정수=고관호 기자

김제시립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30일 열린다

고전 클래식의 거장 모차르트의 숨결과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특별한 무대 '김제시립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리는 무대와 함께, 6·25전쟁 당시 '김제 민중교회'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시(時)를 바탕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특별한 추모 합창곡을 한 무대에 올려 동서양을 넘나드는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기연주회의 관람권 배부는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jmg.go.kr/art>)에서 전석 무료 배부 한다.

/김제=곽도태 기자

완주 K-드라마 촬영지 스왑투어 성료

완주문화관광재단, XR하이로드 스마트버스·도슨트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 호응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 완주DMO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운영한 '2026 K-드라마 촬영지 스왑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고 완주군이 주관, 완주문화관광재단과 완주DMO가 운영한 신규 관광상품으로 모집 단계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얻으며 전 일정이 마감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군 내 K-드라마 및 예능 촬영지를 중심으로 XR하이로드 스마트버스, 드라마 도슨트 해설, OST 미니콘서트, 미션투어를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운영됐다. 양일간 총 60명이 참여했으며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유학생도 함께해 K-콘텐츠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전주한옥마을에서 출발해 XR하이로드 스마트버스를 타고 완주 관광 콘텐츠를 관람한 뒤 오성제, 소양고택, 아원고택 등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촬영지 해설과 OST



공연, 포토미션 및 인증 이벤트가 진행돼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투어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여행 만족도 4.42점(5점 만점), 재방문 의향과 추천 의향이 각각 4.38점을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한옥과 자연경관, 체험형 콘텐츠를 주요 만족 요소로 꼽았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K-콘텐츠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향후 공연·문화예술·미식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